

## 여학생의 진로선택 경향성 및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오 은 진\*

### 1. 서론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시작된 정보화시대의 서막은 지구촌 곳곳을 정보화의 물결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국제사회를 치열한 경쟁구조로 재편하는데 가장 큰 기점이 되었다. 정보화에 의한 산업사회의 기술적 변화, 사회적 변화, 환경적 변화는 산업구조를 고급화된 인력중심으로 재편성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OECD의 선진 국가들은 저마다 자국내 전문화된 고급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원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역할의 관점을 떠나 능력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고 여성고급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은 국가발전의 근본이 될 수 있다.

1945년 광복이후 우리나라 여성교육은 급속하게 팽창하고 고학력화 되었다. 2004년의 교육통계 지표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입학의 여학생비율이 남학생을 넘어서고 있고, 석박사 단계에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고학력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은 상당히 미흡하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은 7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97년 IMF 이후 49% 수준에서 답보상태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 교육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성의 고학력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취업과 경제활동에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여성에 투자한 교육효과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은 여성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식결핍, 소극적인 직업세계 탐색 및 참여 등 여성의 내적요인과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인력의 효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올직 활용을 위해서는 여성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는 정책과 더불어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진로탐색과 의사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 및 직업의식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사전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진로선택 경향을 파악하고 여학생들의 진로선택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중등단계에서 여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진로지도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장래에 여성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사회진출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오늘의 학교교육은 여전히 입시위주 교육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진로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로교육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체제상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교 진학 시점에서 학생들은 일반교육을 실시하는 일반계열 고등학교와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실업계열 및 특수목적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학생들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나 직업의 세계, 환경적인 제 요인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결정에 의해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짙다(1999, 이현림·남혜경). 잘못된 개인의 진로선택은 개인에게는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할 불행이며 국가로서는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적 손실이다. 올바른 진로지도가 이루어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적재적소의 배치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감안한다면 진로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양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1980, 이정근). 따라서 본 연구는 여중·여고 단계에서의 진로선택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본질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여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진로지도를 받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가. 진로선택에 관한 이론

진로발달 및 진로선택 이론을 분류하고 조직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는 학자마다 다양한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Herr과 Cramer(1992)의 분류에 따라 특성이론, 의사결정론, 인성이론, 사회이론, 발달이론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성이론은 공공 직업상담서비스에서 기초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개인의 특성이 조직 및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건들과 일치하는가를 판단하여 직업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먼저 개인의 특성 및 성향을 파악하고 난 후에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및 요건을 조사하여, 상호 최적의 공통요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과 직업을 연결시켜 주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고자 할 때는 개인의 특성과 직업이 요구하는 요건을 정확하게 진단(diagnosis)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의사결정이론은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진로선택을 이론화하려는 시도으로써 이러한 접근방법은 진로선택이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Gelatt(1962), Hershenson과 Roth(1966), Katz(1963)등에 의해 활발히 논의된 의사결정이론은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직업 중에서 자신의 투자를 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상체계로는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치를 부여하는 지위나 명예, 보람, 봉수 욕구충족 등 다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이론의 기본가정은 진로를 선택하는 주체가 정확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 직업적 대안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와 그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예측해 주고 또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주체를 도와주는 상담자의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의사결정 주체인 학생들이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의 효과와 지도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담자들의 주관적 판단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1999, 이현림·남혜경).

셋째, 심리이론의 하나인 인성이론으로 Holland 이론은 개인의 행동양식이나 인성유형이 직업선택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심리이론은 개인의 내적 동기 또는 과정 변인을 중요시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관점은 관찰가능한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는 특성이론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Holland는 직업선택이 개인의 타고난 소질과 문화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의 소산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문화적 요소란 동료·부모·중요한 타인 그리고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김충기, 2000). Holland 이론에서 제시하는 개인 행동유형이란 인성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함수이며 개인의 직업선택의 행동은 개인의 인성의 표출로써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성을 표출할 수 있는 직업 환경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직업을 선택하는 주체를 둘러싼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 교사 등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사회이론은 Miller와 From(1951)이 대표적 제창자들으로써 개인이 속한 사회의 계층에 따라 그 속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반응, 교육정도, 직업적 야망, 지능수준 등을 결정하는 독특한 심리적 환경이 조성되게 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직업선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Krumboltz(1972)의 사회학습이론은 학습이론의 원리를 직업선택에 적용한 것으로 개인의 직업선택 단계에서의 결정요인을 다음의 4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 개인의 타고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재능, 둘째, 환경적 조건과 상황적 요인, 셋째, 학습경험, 넷째, 새로운 직무나 문제에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 등으로 진로결정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상당부분 Bandura(1986)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인지적 이론은 자아개념과 자아효능감, 흥미, 능력, 요구 등의 관계가 진로선택과 개인의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따라서 개인의 학습경험을 형성하고 진로행동에 단계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연구하는 것이 진로발달에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달이론은 직업적 발달도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직업에 대한 지식·태도 기능이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년기에 성숙해진다는 개념으로

Super(1973)의 발달이론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의 생애과정이론(life-span theory)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직업을 선택하고 발달하는 과정을 인간의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모형을 수립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Super(1984)는 직업발달단계를 ①성장기(0-15세), ②탐색기(15-24세), ③확립기(25-44세), ④유지기(45-64세), ⑤은퇴기(65세 이상) 등 개인의 전 생애를 중심으로 형식화하였다. Super에 의하면 인간은 개인의 심리, 생리적 속성에 의해 또는 타인이 포함되어있는 환경요인에 의한 인간발달의 한 측면으로 직업발달을 해 나가게 된다고 보고 있다. Super의 이론이 지나치게 자아개념을 지향한 지적인 면을 강조하고 직업발달 측면을 강조한다는 비판도 제기되나 개인의 직업발달의 과정을 자아실현과 생애발달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자아개념을 직업과 관련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를 통한 진로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동적이며 포괄적 이론이라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면 학자들은 진로선택을 선택의 주체자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와 환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여학생의 진로선택 경향과 문제점

1998년과 1999년에 행해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중·고등학교 진로교육실태조사결과, 중학교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발휘나 자아실현을 위해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한다든지 혹은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다고 한 여학생들은 상당히 드물어 직업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남학생에 비하여 낮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에서도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자아실현 의지를 강조하는 직업의 내면적 가치를 보다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인 경우,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에 관해서 남학생들이 경제활동참여를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것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2001, 진미석외).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이라는 내부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여학생들의 경우, 외부환경인 직업세계의 탐색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남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직업인식에 있어서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의식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건강한 직업관으로 연장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동시에 직업이나 진로에서 여성들이 이상적, 비현실적 태도를 보이는 원인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여학생들은 자신의 직업관에 대해서도 보수적이며, 유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데, 여학생들 중 평생직업을 가지겠다는 의견은 중학생의 경우 과반수(40.1%)를 넘지 못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도 57%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대학 졸업 이후에 직업선택을 사전에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

지 않는 현실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 교육과 직업을 연계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미약한 직업의식에 더 큰 걸림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학생들의 진로선택의 편중된 경향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학생들 모두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진미석(2001)은 여학생과 남학생의 직업선호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학생은 교수, 교사 등 비교적 교육계 직업을 자신의 이상적 직업으로 들고 있으며, 그 위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그리고 미용 디자인 계열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이공계 관련 직업의 선호는 남학생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남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기술공학계인 반면 이것은 여학생들에게는 선호도가 낮은 직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남학생들이 전체 직업군에 대해 다양한 선호와 관심을 보인 반면,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은 일정 직업군에 몰려 있다. 이러한 여학생들의 경향성으로 보아 미래의 지식 기반사회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공학계, 컴퓨터 관련직, 과학연구계에 대한 여학생들의 진출이 미약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향후 미래 사회의 남성과 여성 양성의 균형 잡힌 사회진출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따라서 여학생들에게 더 많이 보완적 진로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진미석, 2001).

진미석의 연구 외에도 여학생들의 진로선택의 문제를 지적한 연구는 상당히 많다. 이영희(1990), 조재천(1991), 김승오(1976)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개인적 요인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들 연구는 직업과 연계한 진로선택의 개인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대학 진로 및 사회진출에 관한 적극적 의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정진구(1987), 권효성(1990)등의 연구는 여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직업과 관련하여 조사하였으나, 연구의 초점이 직업선택의 경향을 파악하기 보다는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와 직업 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부모, 교사, 친구 등) 및 직업을 갖고자 하는 이유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진미석(2001)의 연구가 여학생들도 미래에 직업을 갖는 것이 필수적 사항이라는 가정에서 다양한 직업선택의 실태 파악 및 이를 통한 직업선택 편중성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다면 그 이전의 여타의 연구들은 여학생들에게 미래의 직업은 선택 사항이라는 관점으로 여학생 진로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데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진미석(2001)의 연구는 여학생의 직업선택의 편중적 경향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하여, 여학생들이 교사, 미용, 디자인 등 일반적이고 여성들에게 보다 전통적인 직업군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경향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나 그 편중성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편중되고 있는지, 그러한 편중된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각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의 진로선택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중심으로 여학생들의 선택하는 진로선택의 경향성,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진로편중성과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가정환경과의 관계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가. 연구대상 및 자료

이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생성한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이하 KEEP으로 함)<sup>1)</sup> 데이터를 2차 자료로 사용하였다. KEEP에서는 1단계에서 전국을 지역별로 층화(stratification)하고(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로 층화), 2단계에서 지역별 학생수 비중에 따라(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 학생수 비중에 따라)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는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층화의 단계를 1단계 학교추출, 2단계 학급추출, 3단계 학생 추출로 하였다. 추출 방법은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등으로 분류하여 각 각의 지역 별로 학교수,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할당하였다. 학교(1차 조사구) 추출과정에서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층화하여,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8개 道 등 15개로 층화 하였다(단, 제주도는 제외). 1차적으로 각 학력계층별로 100개의 학교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15개 지역으로 층화된 학교들을 전국 학생수 대비 해당 지역의 학생수의 비율을 이용하여 추출할 학교수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중학교는 총 조사구(학교수)가 357개인데 이는 전국 학생수 대비 19.99%이므로 20개 학교가 표본으로 추출되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총 204개로 전국 학생수 대비 23.01% 비중으로 23개 학교가 표본으로 결정된다. 실업계 고교의 경우 학교유형별로 3개(공업고, 상업고, 기타고) 독립추계집단으로 층화하였다. 그리고 8개 학교유형 중 가사고, 농업고, 수산고, 실업고, 종합고, 해양고는 전국 학생수 대비 비중이 낮아 기타고로 통합하였고 1차적으로 100개의 학교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추출된 표본 중 학생은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총 6000명이며 이외에도 학생이 속한 가구, 담임 교사, 교무교사의 표본을 별도로 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조사 자료는 학생을 포함한 학생 부모, 교사, 학교를 포함한 주변 환경까지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과 직업선택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방법은 각 각의 조사 대상 집단별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과 직업선택의 경향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밝혀보고자 하였다. 통계패키지로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12이다.

#### 나. 연구분석 틀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3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KEEP)로 1차 년도의 자료를 사용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http://keep.nhrd.net>에서 볼 수 있다.

연구문제 1: 여학생들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female-dominated sector) 직업군을 선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선행연구에서 여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학생의 성적, 부모의 영향, 가정의 경제적 상태 등이 여전히 주요한 요소인지를 확인하고 이와 더불어 이공계 기피현상에서 나타나는 수학-과학 선호도의 차이가 여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여학생들이 직업세계 진출과 관련한 직업세계 탐색과 인지가 남학생에 비해서 미약한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을 규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2003년 직업지도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여성편중직종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분류하여 연구의 주요 틀로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는 중고원에서 제시하는 직업을 중심으로 여성 고용이 30%이하인 직업, 31-50%사이의 직업, 51-70% 사이의 직업, 71% 이상 4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여성편중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을 분류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한 학술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고용비율이 전체 직업 종사자 중 30%미만과 70% 이상이라는 기준을 세웠다. 이 기준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여성 할당제의 경우 여성이 적은 직업과 여성이 편중된 직업을 30%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표 1> job 중등학생이 희망하는 직업 분류<sup>2)</sup>

여성 고용 비율	직군
30% 이하(1)	관리자, 법률·경찰·교도 관련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기계 관련직, 재료 관련직, 화학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
31-50%(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 관련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
51-70%(3)	금융·보험 관련직, 교육 및 사회과학·자연과학 연구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섬유 및 의복 관련직, 식품가공 관련직, 농림어업 관련직
71% 이상(4)	보건·의료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연구문제 2와 관련한 중등 단계 학생진로선택에 관한 선행연구는 고교생의 계열선택에 가정의 경제수준, 어머니의 학력, 학교성적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한상근, 2001; 진미석·윤영한, 2002)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학생들의 진로의식, 학부모나 교사의 진로지도 영향, 가정환경,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 경험 등 다양한 변인들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여, 남녀 학생의 진로선택에서 성차 및 여학생들이 진로선택에서 고민하는 보다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4장의 결과분석에서 언급되는 여성고용점유율은 <표 1>에서 제시한 분류기준을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학생들이 직업을 희망하는 이유, 구체적인 직업탐색과 관련한 지식 및 활동,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변 요인들에 관한 서로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진미석, 2001)의 연구에서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직업 세계 탐색과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남학생과 비교해서 현실적 이유보다는 보다 관념적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 미래에 자신이 얻고자 하는 직업에 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미래의 직업과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남녀간의 인식에 관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어떠한 요인이 직업과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찾아내어 여학생들이 보다 적극적 직업 및 전공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4. 결과 분석

##### 가. 여학생들의 진로선택의 경향성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여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종과 직군을 희망하고 있는 경향성은 파악되었다(진미석외, 2001). 2002년부터 정부는 여학생들을 과학기술분야로 적극적으로 이끌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특히 정부는 과거와 비교하여 WISE 정책<sup>3)</sup>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여학생들의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출에 관한 선호도나 경향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여학생들의 진로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여성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학생의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진로선택 성향을 충분히 파악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의 <표 1>에서 제시한 분류에 의해 <표 2>는 여성지배적 직업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선택 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아래에 제시한 결과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여학생인 경우 비교적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50%이상 종사하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 62.2%, 실업계 여학생 60%, 인문계 여학생 60.6%로 나타나 전체 여학생의 60%이상이 여성들이 50% 넘게 종사하는 전통적으로 “여성지배적”직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것은 과기부가 지원하였고 최근에 교육부로 이관된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사업 및 프로그램이다.



<표 2> 중등단계 학생들의 직업선택의 경향성

(단위: 명, %)

여성 고용 비율		30%이하	30-50%	50-70%	70%이상	합계	통계량
중학교	여학생	66( 9.9)	187(28.0)	327(49.0)	88(13.2)	668(100.0)	$x^2=106.358$
	남학생	175(31.0)	100(17.7)	188(33.3)	102(18.1)	565(100.0)	df=3
	전체	241(19.5)	287(23.3)	515(41.8)	190(15.4)	1233(100.0)	p=.000
실업고	여학생	65(11.2)	167(28.7)	239(41.1)	110(18.9)	581(100.0)	$x^2=210.045$
	남학생	283(48.1)	146(24.8)	101(17.2)	58( 9.9)	588(100.0)	df=3
	전체	348(29.8)	313(26.8)	340(29.1)	168(14.4)	1169(100.0)	p=.000
일반고	여학생	59( 9.0)	200(30.4)	298(45.4)	100(15.2)	657(100.0)	$x^2=144.979$
	남학생	274(36.2)	146(21.7)	244(32.2)	75( 9.9)	757(100.0)	df=3
	전체	333(23.6)	364(25.7)	542(38.3)	175(12.4)	1414(100.0)	p=.000

<표 3>에 의하면 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남녀간의 대학 전공 선택에 관한 선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학력별, 계열별 대학 전공 선호 정도의 남녀간 차이

(단위: 명, %)

학교단계	계열	여학생	남학생	합계	통계량
중학교	인문계열	73(14.7)	31( 8.2)	104(11.9)	$x^2=124.815$ df=6 p=.000
	사회계열	48( 9.6)	68(17.9)	116(13.2)	
	교육계열	86(17.3)	28( 7.4)	114(13.0)	
	공학계열	17( 3.4)	72(19.0)	89(10.1)	
	자연계열	54(10.8)	60(15.8)	114(13.0)	
	의학계열	55(11.0)	64(16.9)	119(13.6)	
	예체능계열	165(33.1)	56(14.8)	221(25.2)	
	전체	498(100.0)	379(100.0)	877(100.0)	
실업고	인문계열	25( 5.6)	14( 2.5)	39( 3.9)	$x^2=245.761$ df=6 p=.000
	사회계열	96(21.6)	73(12.9)	169(16.7)	
	교육계열	55(12.4)	10( 1.8)	65( 6.4)	
	공학계열	31( 7.0)	274(48.5)	305(30.2)	
	자연계열	36( 8.1)	35( 6.2)	71( 7.0)	
	의학계열	69(15.5)	21( 3.7)	90( 8.9)	
	예체능계열	132(29.7)	138(24.4)	270(26.8)	
	전체	444(100.0)	565(100.0)	1009(100.0)	
일반고	인문계열	71(10.5)	56( 6.7)	127( 8.4)	$x^2=165.669$ df=6 p=.000
	사회계열	167(24.8)	236(28.1)	403(26.6)	
	교육계열	143(21.2)	94(11.2)	237(15.7)	
	공학계열	27( 4.0)	216(25.7)	243(16.1)	
	자연계열	59( 8.8)	81( 9.7)	140( 9.3)	
	의학계열	78(11.6)	54( 6.4)	132( 8.7)	
	예체능계열	129(19.1)	102(12.2)	231(15.3)	
	전체	674(100.0)	839(100.0)	1513(100.0)	

중학생들의 경우, 여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전공계열은 1순위 예체능, 2순위 교육계열, 3순위 인문계열인 반면 남학생들은 1순위 공학계열, 2순위 사회계열, 3순위 의학계열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실업계 학생들의 경우 여학생들은 예체능, 사회계열, 의학계열 순으로 희망전공을 나타낸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사회계열 순으로 희망전공을 표시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사회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순으로, 남학생들은 사회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여학생들은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약하며,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편중되어있는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진로 편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 우리사회의 핵심인력이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미래 전망과 차이가 있어서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앞의 <표 2>에서 언급된 학생들이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4>에 따르면 여학생, 남학생 모두 적성과 소질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지속적 고용 보장과 개인적 발전 가능성을 직업선택의 첫 번째 요인으로 뽑은 학생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나, 남학생들의 경우는 높은 임금과 소득을 위하여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지속적 고용보장과 개인적 발전 가능성 보다 더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직업과 관련한 현실적, 경제적 보상에 대해 남학생이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특정 직업을 희망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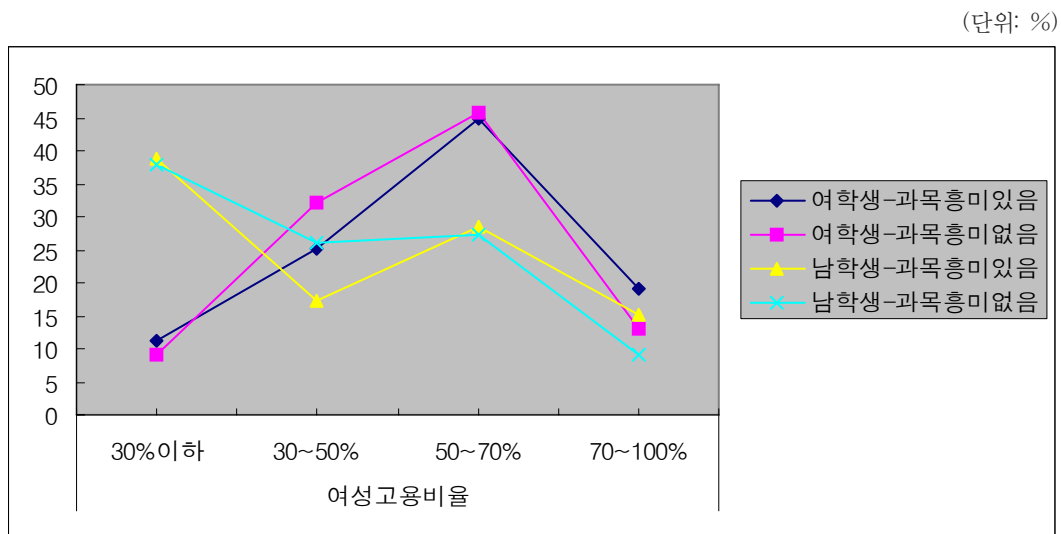
(단위: 명, %)

	일반계		실업계		중학교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소질과 적성	443(66.7)	464(59.6)	356(60.5)	349(56.0)	463(69.2)	316(54.2)
높은 임금, 소득	31( 4.7)	68( 8.7)	32( 5.4)	65(10.4)	35( 5.2)	61(10.5)
지속적 고용 보장	74(11.1)	100(12.8)	66(11.2)	55( 8.8)	40( 6.0)	41( 7.0)
개인 발전 가능성	50( 7.5)	42( 5.4)	67(11.4)	83(13.3)	36( 5.4)	52( 8.9)
사회봉사	6( 0.9)	21( 2.7)	11( 1.9)	7( 1.1)	21( 3.1)	36( 6.2)
여가시간활용	11( 1.7)	20( 2.6)	8( 1.4)	8( 1.3)	11( 1.6)	18( 3.1)
쾌적한 노동 환경	6( 0.9)	8( 1.0)	10( 1.7)	12( 1.9)	8( 1.2)	9( 1.5)
창의성, 자율성발휘	23( 3.5)	33( 4.2)	13( 2.2)	23( 3.7)	26( 3.9)	23( 3.9)
사회적 인정	20( 3.0)	23( 3.0)	25( 4.3)	21( 3.4)	29( 4.3)	27( 4.6)
전체	664(100.0)	779(100.0)	588(100.0)	623(100.0)	669(100.0)	583(100.0)

나. 여성지배적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학업성취정도와의 관계

[그림 1], [그림 2], [그림 3은 학생들의 수학-과학 선호 및 학생학업 성취 정도에 따라 학생들이 “여성지배적 직업”을 선택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1]의 결과는 여학생들이 비교적 여성고용비율이 높은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은 나타나지만, 수학-과학의 흥미여부에 따라 직업선택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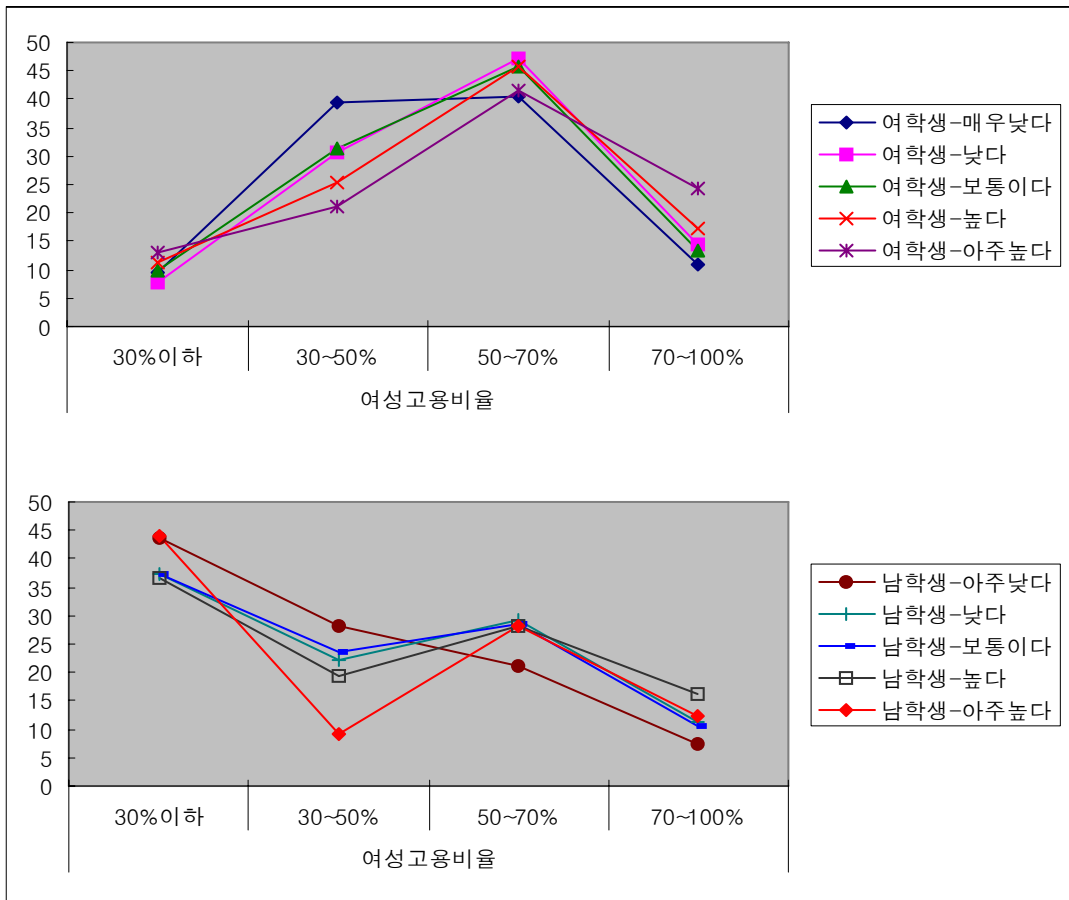
남학생들의 경우는 수학-과학의 흥미와 상관없이 극단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직업군(전체 70%이상이 여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수학-과학 교과 흥미도에 따른 직업선택

[그림 2]는 담임교사가 평가하는 관점에서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희망직업 선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학생들의 경우 성적에 따라 직업선택의 차이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성적우수 학생 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남성지배적 직종 또는 여성지배적 직종에 다양하게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는 성적과 상관없이 남성지배적 직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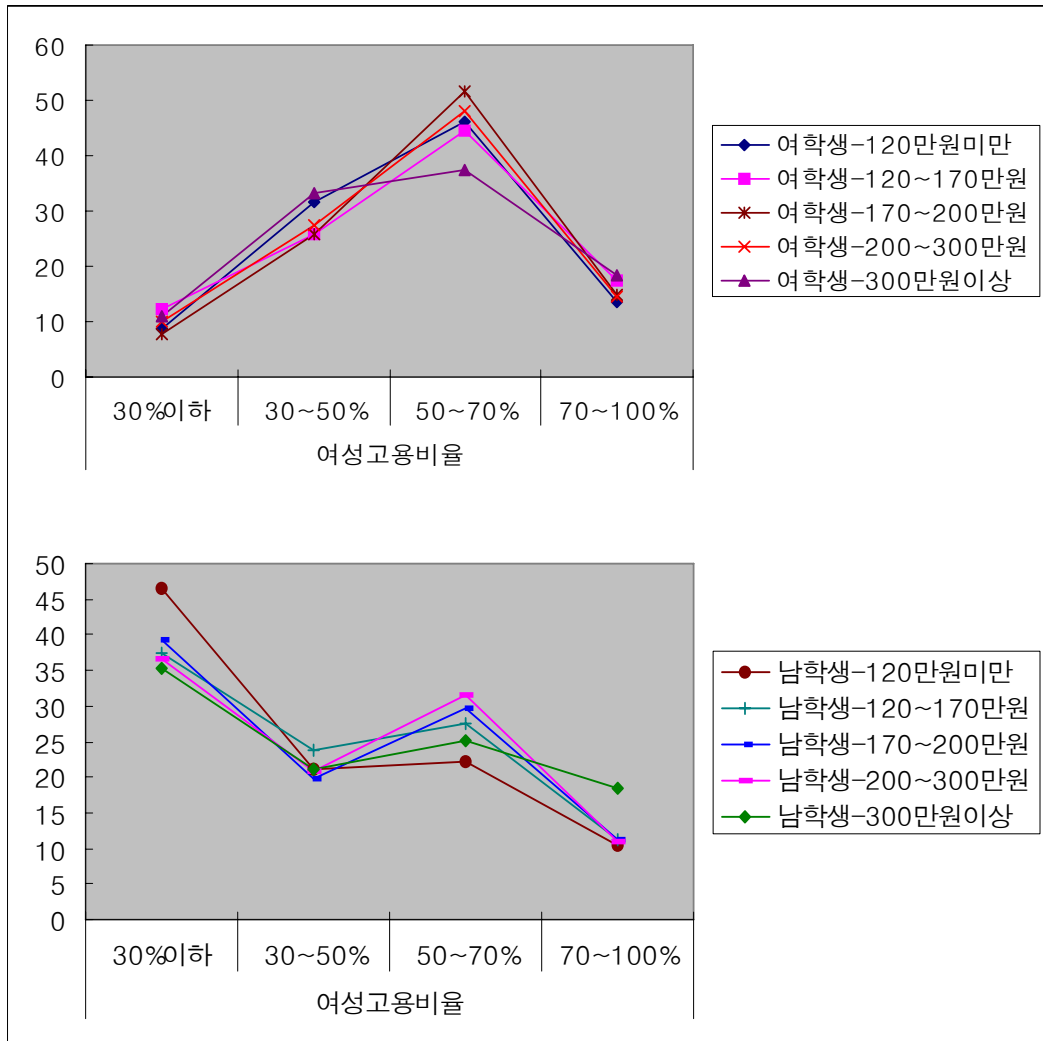
[그림 2] 학생의 학업성취평가정도와 희망직업선택

다. 가정환경에 따른 여성지배적 직업 선택의 정도

[그림 3]은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에 따라 여학생, 남학생이 “여성지배적 직업”을 선택하는 정도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직업선택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12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과 3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정을 비교한다면 고소득 가정의 학생인 경우 남성 지배적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약간 높다고 볼 수 있으나 통계적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편, 남학생의 경우도 가정의 소득수준과 직업선택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남학생들은 “남성지배적 분야”로의 진출성향이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3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정에서 여성이 70%이상 취업하고 있는 직종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경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 고소득 가정인 경우 직업에 대한 편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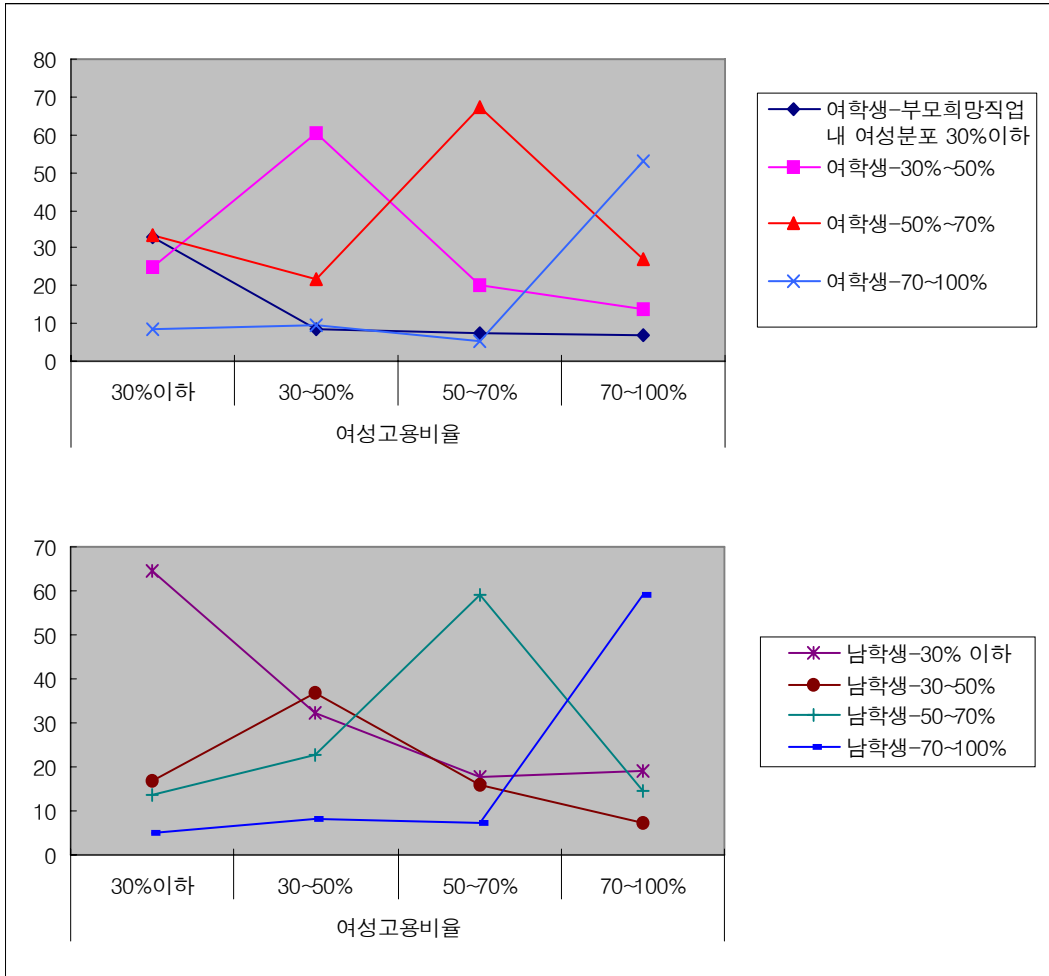
[그림 3] 월 평균 생활비에 따른 직업선택

여학생  $x^2=21.515$   $df=12$   $p=.043$  남학생  $x^2=30.486$   $df=12$   $p=.002$

[그림 4]는 부모와 자녀가 미래의 자녀에게 희망하는 직업의 정도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표이다. 이 표에 의하면 자녀가 원하는 직업과 부모가 원하는 직업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대체로 여학생인 경우에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학생의 경우 부모가 “남성지배적 직업분야(여성취업률 30%이하)”를 선호하는 경우, 학생들도 그런 직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고, 부모가 “여성지배적 직업분야(여성취업률 70%이상)”를 선호하는 경우 학생들도 그러한 직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부모들도 부모가 선호하는 직업을 대체로 선호하는 결과는 유사하나, 여학생들의 경우만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



[그림 4] 부모가 미래에 자녀에게 희망하는 직업과 자녀가 희망하는 직업

라. 직업과 진로에 관한 정보인식 정도

<표 5>와 <표 6>은 여학생들이 남학생과 비교하여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과 전공에 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표 6>에 의하면 직업에 관한 근무환경 및 업무, 그리고 미래의 전망과 보수에 대해 남녀 모두 유사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직업에 대한 이해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 및 진로탐색의 단계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5> 직업에 대해 아는 정도(평균과 표준편차)

	일반계		실업계		중학교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업무내용· 근무환경	3.40(.770)	3.36(.808)	3.25(.793)	3.31(.903)	3.30(.783)	3.31(.860)
전망·보수	3.28(.811)	3.40(.885)	3.14(.834)	3.17(.903)	3.04(.850)	3.13(.893)
n	664	779	588	623	669	583

※ 1=전혀 모른다, 2=잘 모른다, 3=보통이다, 4=잘 안다, 5=매우 잘 안다

<표 6>을 보면 대학희망전공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남녀간의 정보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졸업 후 진출 가능한 직업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희망전공이 요구하는 내신과 수능 점수, 소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간에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였다.

<표 6> 희망전공에 대한 정보(평균과 표준편차)

	일반계		실업계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졸업 후 진출 가능한 직업	3.66(.722)	3.53(.812)	3.34(.748)	3.19(.823)
요구되는 내신과 수능 점수	3.67(.761)	3.72(.794)	3.24(.802)	3.12(.863)
요구되는 소질과 능력	3.66(.706)	3.59(.840)	3.33(.778)	3.31(.808)
n	674	840	444	566

※ 1=전혀 모른다, 2=잘 모른다, 3=보통이다, 4=잘 안다, 5=매우 잘 안다

<표 5>, <표 6>과 관련한 미래의 직업, 희망전공에 관한 진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표 7>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경우 남녀 모두 인터넷에 의한 정보 습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남(46.2%), 여(51.1%) 모두 인터넷에 의한 정보습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인 경우 학부모, 담임교사와의 상담에 의한 정보습득도 비교적 활발하였고,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아버지 에 의한 진로정보의 습득이 인터넷 및 담임교사와의 상담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저학년 학생들의 진로선택은 부모들 및 담임선생님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들의 경우 어머니에 의해 진로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남학생에 비해 많지만 가장 선호하는 통로는 인터넷이며 그 다음으로는 담임, 친구들도 고르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진로와 관련된 정보의 출처

(단위: 명, %)

	일반계		실업계		중학교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아버지	26 (2.9)	65 (5.8)	25 (2.8)	73 (6.6)	86 (8.6)	178 (17.9)
어머니	43 (4.9)	37 (3.3)	50 (5.6)	68 (6.2)	168 (16.7)	147 (14.8)
학교선생님	93 (10.5)	164 (14.7)	180 (20.1)	259 (23.4)	94 (9.4)	123 (12.3)
학원선생님	72 (8.2)	64 (5.7)	47 (5.3)	42 (3.8)	75 (7.5)	70 (7.0)
형제	24 (2.7)	53 (4.7)	56 (6.3)	66 (6.0)	67 (6.7)	67 (6.7)
친척	13 (1.5)	22 (2.0)	19 (2.1)	33 (3.0)	24 (2.4)	30 (3.0)
친구	80 (9.1)	106 (9.5)	162 (18.1)	164 (14.8)	195 (19.4)	154 (15.5)
선배	14 (1.6)	25 (2.2)	20 (2.2)	63 (5.7)	26 (2.6)	19 (1.9)
취업, 유학, 진학 박람회	0 (0.0)	2 (0.2)	5 (0.6)	0 (0.0)	1 (0.0)	0 (0.0)
진로정보 제공 전문기관	23 (2.6)	24 (2.1)	6 (0.7)	5 (0.5)	12 (1.2)	11 (1.1)
신문, TV, 라디오	24 (2.7)	23 (2.1)	14 (1.6)	14 (1.3)	32 (3.2)	41 (4.1)
인터넷	451 (51.1)	516 (46.2)	298 (33.3)	312 (28.2)	223 (22.2)	151 (15.2)
진학정보 서적	20 (2.3)	16 (1.4)	13 (1.5)	6 (0.5)	1 (0.1)	5 (0.5)
전체	883 (100.0)	1117 (100.0)	895 (100.0)	1105 (100.0)	1004 (100.0)	996 (100.0)

<표 8>은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분석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중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점점 성장할수록 진로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누군가가 없다고 대답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반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가 진로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28.3%), 아무도 영향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의견도(26.2%) 그 다음으로 많아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진로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멘토(mentor)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년이 높아 질수록 남학생들의 경우는 아버지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높아져 아버지들에 관한 진로의식 또는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점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8> 진로와 관련하여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

(단위: 명, %)

	일반계		실업계		중학교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아버지	93 (10.5)	249 (22.3)	111 (12.4)	249 (22.5)	157 (15.6)	295 (29.6)
어머니	250 (28.3)	175 (15.7)	215 (24.0)	204 (18.5)	349 (34.8)	294 (29.5)
학교선생님	81 (9.2)	122 (10.9)	106 (11.8)	187 (16.9)	68 (6.8)	60 (6.0)
학원선생님	48 (5.4)	40 (3.6)	35 (3.9)	21 (1.9)	25 (2.5)	20 (2.0)
형제	51 (5.8)	38 (3.4)	60 (6.7)	62 (5.6)	51 (2.5)	34 (3.4)
친척	16 (1.8)	26 (2.3)	22 (2.5)	23 (2.1)	25 (2.5)	12 (1.2)
친구	66 (7.5)	84 (7.5)	121 (13.5)	125 (1.3)	126 (12.5)	75 (7.5)
선배	20 (2.3)	14 (1.3)	16 (1.8)	31 (2.8)	9 (0.9)	10 (1.0)
역사적으로 혹은 현존하는 위인	24 (2.7)	50 (4.5)	7 (0.8)	9 (0.8)	17 (1.7)	17 (1.7)
종교인	3 (0.3)	10 (0.9)	4 (0.4)	3 (0.3)	5 (0.5)	3 (0.3)
없음	231 (26.2)	38 (27.6)	198 (22.1)	191 (17.3)	172 (17.1)	176 (17.7)
전체	883 (100.0)	1117 (100.0)	895 (100.0)	1105 (100.0)	1004 (100.0)	996 (100.0)

## 5. 결론 및 제언

앞에서 제시한 1차 한국 교육-고용 패널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연구문제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과를 통해서 개선될 문제로 지적 된 부분에 관한 정책 제언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여학생들은 여성들이 비교적 많이 고용되어 있는<sup>4)</sup> 금융, 보험, 교육 및 사회과학, 사회복지 및 종교, 미용, 숙박, 오락, 섬유, 의복 관련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종사자 중 여성이 50% 이상 종사하고 있는 직종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여학생이 그렇지 않은 직종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기를 원하는 학생에 비해 10-12%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여전히 여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여성 편중적 직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공계열에 대한 기피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약간의 차이는 발견되지만 이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전공 중에 이공계열은 사회, 예체능, 교육 계열 등에 밀리는 후순위에 속하고 있었다.

여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직업 즉 미래 지식기반사회에서 핵심 산업으로의 진출을 확대시

4) <표 1>에서 제시한 여성 고용이 51-70%비율로 차지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진로편중현상을 완화해야 하며 이것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시급한 과제로 판단된다. 우선 여학생들의 진로정책을 기존의 진로정책과 차별화하여 체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다양한 직업세계의 탐색과 직업세계 진출 이후의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 전망 등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별도의 교재나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여학생들의 진로의식과 직업선택의 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여학생들의 진로의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수학-과학에 관한 흥미여부, 학생의 학업성취의 정도, 가정의 경제적 환경은 학생들이 직업선택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여학생의 경우 학업성취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50%이상 종사하는 직업군을 선호하는 경향이 심했다. 그러나 성적이 “아주 우수”한 경우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남성지배적”직업을 선택하는 경향과 “여성지배적”직업을 고르게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가계의 경제적 형편에 따른 학생들의 직업선택의 차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학생의 경우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원하는 직업이 “여성 지배적 직업”일 경우 학생들도 그 직종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남성 지배적 직업”을 가장 원하는 경우 학생들도 그것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섯째, 학생들은 직업선택에 부모의 영향, 즉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고학년이 될 수록 어머니의 영향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도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 학생들에게 인생을 상담할 좋은 멘토가 부재함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직업선택에 부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부모들의 진로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현재 부재하다. 일반적으로 학부모 진로교육은 학교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학생들의 직업 및 진로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부모교육에 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여섯째, 학생들은 정보탐색과 관련하여 고학년 단계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 사이에서 더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로탐색과 관련한 정보를 배포시키는 기능으로 인터넷의 기능을 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학생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 및 활용의 범용성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자신의 진로 및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로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다양하고 가치 있는 전공 및 직업선택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은 다양한 진로정보 사이트를 개발, 보

급해야 한다.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넷”이 진로정보 사이트로 보급되고 있으나, 이 사이트는 차별화 전문화된 진로정보 사이트가 아닌 일반적인 학생 진로 및 정보를 담당하는 사이트이므로 학생들 자신들이 각 각 처해있는 상황에 적절한 맞춤형 진로정보 및 상담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시도의 교육청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진로정보사이트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김충기(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김승오(1976). 인문계고등학교 비진학생 진로희망 실태와 직업지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진미석(2001).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학생 진로지도 체계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이현림, 남혜경(1999).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요인분석,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53-82.
- 이영희(1990). 고교생의 진로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근(1980).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서울: 중앙적성 연구소
- 정진구(1987). 인문계 고교생의 진로선택의 방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재천(1991).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진로결정 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elatt, H. B.(1962). Decision making: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9, 240-245.
- Krumboltz, J. D. (1991). *Manual for the career beliefs inventory*. Palo Alto, CA: CPP.
- Hershenson, D. B., & Roth, R. M.(1966). A decisional process model of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0, 368-370.
- Herr, E. L., & Cramer, S. H.(1992). *Career guidance and counsel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es(4th ed)*. New York: Harper Collins
- Kats, M. R.(1963). A model of guidance for career decision-making.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15(1). 2-10.
- Holland J. L.(1959). A theory of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 35-45
- Super, D. E.(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4), 185-190.
- Miller, D. G., & Form, W. H. (1951). *Industry societ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